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북부지방산림청 합동 임업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상용)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월 27일(금) 14시에 임업재해예방 결의대회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목작업 중 작업자가 나무에 깔리거나, 전도되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강원지역은 산림이 많아 관련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대회 및 안전교육에는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산림조합, 영림단, 한국원목생산협회 강원 영동·영서지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강원 영동·영서지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원 지역의 벌목 중대 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기별 주요 위험요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벌목작업 시기(3월~5월, 10월~12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5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한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 >

- | | |
|------------------------------------|--------------------|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 |
|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
|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벌목작업은 노동자가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고위험 작업으로 일선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

하며,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 점검 및 교육을 계속하고, 안전 수칙 미준수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여 임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33-269-3580)
		담당자	근로감독관	임동훈 (033-269-3521)



참고

결의대회 사진

